

# 난(蘭)을 잘 재배하는 방법

조 기 선  
(광주지부 과장)



## 난의 재배와 문제점

오늘날 과학의 독주에서 휴머니즘의 구출이 과제로 등장하고 있고 인간 상실의 암흑시대라고 표현되는 현대에서 무엇인가 인간본연의 생활을 추구하려는 의욕이 싹트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자연을 숭상하고 녹색의 생명 없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녹색의 생활이 그리워지는 것은 꼭 자연스러운 일이라 보겠다. 난을 기르는 것 역시 여기에 합류되어 동호인들이 늘고 있는 요즘 협회의 가족들도 동참하여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때 백만의 원군을 만남보다 더 흐뭇함을 느끼게 된다.

### 1. 햇빛과 통풍

난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온실의 경우는 햇살을 차광망으로 조절하겠으나 온실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는 충분한 햇빛을 쬐어 새 뿌리를 촉진시키고 새싹이 튼튼히 자라도록 보살피주어야 한다. 햇빛은 보통 아침 9시까지는 직사광선도 무방하나 그 이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며 (정오의 광도는 약 6만룩스~7만룩스이며 난의 최적룩스는 1만룩스임) 온실의 온도는 30℃까지는 무방하나 반드시 통풍작용이 필요하고 20℃ 이상 30℃ 까지 올라갈때는 매일 몇시간(12~15시사이)이나마

통풍을 시켜줘야 한다. 난에 필요한 광도는 다음과 같다.

- ① 일경구화(一日九華) : 1만5천~2만룩스
- ② 건란(建蘭)·옥화(玉花)·소심등세엽혜란(素心等細葉惠蘭) : 1만3천~1만8천룩스
- ③ 춘란(春蘭)으로서 일화(一花) : 1만3천~1만8천룩스
- ④ 보세(報歲) : 1만룩스
- ⑤ 한란(寒蘭) : 8천룩스

### 2. 관수

온실이나 실내의 환경 및 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수는 표토가 마른 뒤에 충분히 하는 원칙을 엄두에 두고 아침 일찍이나 석양에 주는 것이 좋다. 특히 하절기 햇살일때의 관수는 금물이다. 이유는 난에 준 물이 새싹을 상할 우려가 있으며 이도 악영향을 받아 약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관수의 회수는 맑은 날씨의 경우 광엽계 즉 보세(報歲) 및 대명(大明) 계통이 2~3일에 1회, 세엽혜란(細葉惠蘭), 건란(建蘭), 옥화(玉花), 춘란(春蘭), 한란(寒蘭)은 3일에 1회, 일경구화(一日九華), 금릉변(金陵邊)은 4일에 1회씩이면 좋을 것이다. 관수 할 때는 난분 밑으로 물이 흘러 내리도록 충분히 주어야 한다.

이유는 식재에 충분한 수분이 흡수될 뿐만 아니라 난분속에 탁해졌던 공기를 물줄기를 따라 내보내고 맑은 공기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분속의 공기

를 환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여 뿌리에 생기기 쉬운 도움을 주게 되는 까닭이다.

혹 어떤 분은 물동이에 물을넣고 그 속에다 많은 난분을 넣었다 꺼내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급물이다. 왜냐하면 만일 한 난분에 병충해가 발생 하였을 때는 물에 넣었던 전체의 난분에 전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 3. 시비

시비는 3월중에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동양란에는 일반 표준농도보다 2배 정도 약하게 희석하여 월 3회 정도 주는 것이 보통이며 하이포텍스, 마그 암프K등과 같은 무기질 화학비료를 쓰고 있으나 우리가 주의할 점은 동양란에 있어서의 과다 시비로 인하여 각종 병충해를 일으키는 경향이 많아 득보다 실의 경우가 더 많을 때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크암프K의 경우 보통분에 대립(大粒)은 4~6립(효력3년), 에드-볼의 경우 2~3개(효력 4~6개월)씩 놓아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7월중순부터 8월과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의 시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4. 병충해 방제

병충해의 본격적 활동기가 4월부터 시작되므로 방제작업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새끼성병해로는 갈반병(揭斑病)·연부병(軟腐病)·엽고병(葉枯病), 탄저병(炭疽病), 금수병(金秀病), 체병(體病) 등이 있으며 감염의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면 봄철에 고온다습한 온실에 통풍작용이 잘 안되었을 때가 제일 많고 다음은 과다시비와 광도높은 해살을 쬐어 약해했을 때 등이다. 따라서 예방은 위와같은 점을 주의해야 하며 예방살균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해

주는 것은 물론 병이 발생하였을 때도 계속 살균제를 살포 해주면 다른 일에 전염이 안된다.

살균제로서는 톱신엠, 벤네이트, 다 이젠 등이 있으며 4월초순부터 10월초까지는 월 2회에 걸쳐 잎사귀 면에다 살포함이 좋다.

개락충, 민달팽이는 새싹이나 꽃눈의 식해 원인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며 살충제를 상기 살균제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잘 듣는다.

이상과 같은 살균병해는 살균제로 예방 및 방제가 가능하나 가장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병으로서 본 병의 양상은 신엽에 퇴록색의 반점을 이루며 퇴록색의 반점 또는 반문이 흩어져 얼룩이 현상, 다시 말해서 새 촉이 나올때 얼룩 현상이 나타난다. 이 병은 현재 불치병으로서 가장 무서운 병이다.

바이러스병이 발생한 난분이 발견 되었을 경우 그 즉시 다른 분에 전염 될 우려가 있으며 분까지 조각시킴이 바람직하다.

발병의 원인은 확실치 않으나 질소 및 인산비료를 많이 씌우므로 원인이 되는 것 같고 고온으로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별로 없을 때 발생하지 않나 생각되며 시비에 있어서 유기질체의 아미노산등은 바이러스병의 감염이 거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5. 난분갈이

난분은 3년에 한번씩 갈아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며 분갈이의 시기는 보통 4월중이나 9월말경에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가온하는 온실의 경우는 동절기에도 분갈이를 할 수 있지만 유의할 점은 분갈이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간 뿌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늘진 곳에 두고 매일 관수하여야 하며 다만 15℃이

하일 경우 하루 걸러 관수. 그 이후부터는 전기한바와 같이 그 품종의 관수 요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분갈이 할 때는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깨끗이 씻어 반드시 살균제로 소독해 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뿌리의 크기에 따라 알맞은 분을 선택해 되유의 할 점은 가위질 할 때는 반드시 소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은 만일 어떤 뿌리가 일에 분갈이 잠재하였을 때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가위질을 한 분은 전체에 감염 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특히 옥화·건란은 봄철에 분갈이를 하여주면 새촉대신 많은 꽃대가 올라 오게 되므로 꽃을 증기는 분은 매년 봄철에 분갈이를 해주되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분은 가온에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름철과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잎끝이 약간 검붉게 되어 마른 모양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발병이 아니고 관수요령의 부족·물을 너무 자주 주어서 뿌리가 상하여 나타나는 경우와 물을 재배에 주지 않는 경우이나 또한 너무 건조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난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염려할 필요는 없으나 관수에 각별한 신경을 요한다.

또한 새싹이 나와서 부터 보통 3년~6년 동안은 심심하게 생장할 수 있으나 몇종의 새싹을 생장시켜 놓고 자 연고사하니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난을 재배하는 한국의 애란가들은 짧은 경험은 토대로 하여 재배하고 있어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경험이 요구되며 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꾸다 보면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의심치 않는 바이다.